

전문병원을 찾아서

당뇨병환자와 함께한 세월 30년,

당뇨전문내과 양재최의원



30년 가까이 인슐린펌프만을 이용한 당뇨병 치료에만 매진해온 명실상부한 “당뇨병전문 클리닉”인 양재 최의원. 단순한 병원의 차원을 넘어, 종합당뇨치료 센터로서 당뇨교육실과 운동시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춰 당뇨병의 진료에서 교육까지 모든 것이 원내에서 가능하다. 당뇨전문내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체계적인 당뇨관리 시스템과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재최의원은 인슐린펌프를 이용한 당뇨 치료에 매진해 ‘당뇨의 완치 실현’을 위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인슐린펌프치료 및 당뇨전문센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양재최의원 박항현 원장은

“당뇨병은 환자마다 개개인의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의 몸을 컨트롤하는 중요하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24시간 정상혈당이 유지되어 합병증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인슐린펌프는 평상시 인슐린

기초량이 꾸준히 주입되고 식사 때 필요한 양의 인슐린을 공급할 수 있어 인체의 리듬과 흡사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당뇨 치료의 기본이자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되새겨 볼 때 인슐린펌프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 자신합니다” 라고 말하며 오랜 전통을 가진 당뇨전문내과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냈다.

인슐린펌프치료 전문만 30년

양재최의원이 다른 병원과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인슐린펌프 치료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양재최의원 한순희 수간호사는 “인슐린펌프치료는 24시간 정상혈당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만큼 혈당조절이 잘되고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적지요. 이런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인슐린 펌프치료는 의료진의 오랜 노하우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해요. 같은 인슐린펌프로 치료를 해도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인슐린펌프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환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상담이 병행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환자도 많아요. 당뇨병은 무엇보다 제대로 된 교육이 필수인데, 교육을 받아본 환자가 드물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희 병원은 탄탄한 프로그램으로 당뇨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간호사, 교육 간호사, 임상병리사, 영양사등 각자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상담을 하며 환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양재최의원은 전문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빚어낸 인슐린펌프 치료를 통해 당뇨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가족 같은 친밀감과 유대관계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체계적 당뇨교육이 필수

당뇨병을 잘 관리하면 정상인과 다름없이 기대수명을 살 수 있다. 문제는 당뇨병을 잘 관리하는 데서 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혼자서는 벅차다는 점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당뇨병에 대한 ‘정보’가 적다는 것이다. ‘당뇨병은 교육이 치료의 일부’ 라는 말이 있듯이 당뇨병에 대해 잘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양재최의원은 매주 박황현 원장이 직접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당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뇨병환자에게 교육은 필수사항인 만큼 세세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환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당뇨용어들을 쉽게 정리해주고, 환자의 경험을 예를 들어 설명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식사요법, 운동관리, 생활관리, 인슐린에 대한 지식전달 및 펌프와 관련된 교육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강의가 끝나면 환자와의 질의시간을 마련하며 개개인에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지도해준다.

또한 정기적인 강좌와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당뇨와 당뇨합병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도록 도와주며

24시간 전문 상담을 통하여 환자의 당뇨치료에 동참하고 있다.

박원장은 “당뇨병은 스스로의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당뇨병도 초기진단이 빠르면 좋습니다. 당뇨병은 가족력이 높은 병이기 때문에 가족 중 당뇨병환자가 있다면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병의 유발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병으로 무엇보다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생활관리만 잘해도 합병증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고 말하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자와 의료진의 친밀한 관계



실제로 양재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은 한번 인연으로 평생관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래된 역사가 있는 만큼 환자 또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수간호사는 “당뇨병은 평생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오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어요. 실제 당뇨병환자는 병적인 고통보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과는 대화를 통한 상담이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가족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오히려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놓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라고 말하며 병원에 들르는 환자 한분 한분을 반갑게 맞이했다.

양재최의원을 찾은 한 노인환자는 “올해로 양재최의원에서 당뇨 치료를 받은 지 14년째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내 얼굴을 보면 혈색이 좋다고들 난리들이예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은데 나는 오히려 건강해 보인다는 소릴 들으니 기분 좋죠. 주위에 당뇨가 있다는 사람이 있으며 내가 병원을 추천해줘요. 내가 뭐 증인이니, 허허. 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펌프는 나 같은 노인네도 금방 다룰 줄 알고 익숙해지니 그저 병원에서 가르쳐 준 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이제껏 합병증 없이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해서 평생 건강을 지켜야지” 라고 말하며 얼굴에 한가득 웃음꽃을 피웠다.

당뇨는 개인의 의지로 치유

당뇨병은 합병증이 오기 전에 치료를 하면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당뇨병에 따른 합병증까지 예방할 수 있다.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비만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부적절한 약물 등 후천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위험원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 수시로 체크하고 확인해봐야 한다.

당뇨병의 발병률이 점점 높아가는 현 추세를 바라보며 박원장은 “이제 곧 당뇨 대란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미 ‘국민병’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성인 때 나타났던 제 2형 당뇨병이 최근엔 청소년에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뇨병도 초기에 잘 관리 하고 치료하면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적절한 운동으로 정상체중을 항상 유지하고, 식사와 운동요법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자기관리만이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라고 전하며 정기적 검진을 통해 당뇨병을 조기 진단하고 예방하기를 당부했다. 

글 / 임채영 기자



양재 최의원 박황현 원장